

만주족의 정체성과 청대사 연구

윤 영 인 영산대학교

머리말

중국의 역사는 송(宋)-원(元)-명(明)-청(淸) 왕조의 상호 계승과 연속성을 강조하지만 몽골 세계제국 원나라는 남송을 정복하였지 결코 송을 계승하지 않았다. 명(明)도 원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다만 원 제국의 일부인이었던 중원지역에 한족의 독립 정권을 세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만주족의 청 제국(Daicing gurun)도 한족왕조 명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다만 명의 영토였던 중원을 그들 제국의 판도에 편입한 것이다.

명이 한족의 전통 영역인 중원과 원대에 편입된 운남지역을 더한 “작은 제국”에 만족한 것에 비해, 만주족은 17-18세기에 新疆, 티벳, 몽골, 만주, 그리고 대만 등의 소위 ‘변강’지역을 그들 제국의 판도에 편입하였다. 만주제국은 명 영토의 2배에 달하는 대제국이었으며, 지금 ‘중국’의 ‘변강’지역들은 만주족에 의해 정복되어 ‘중국’이 아닌 청 제국에 편입된 것이다. 청의 변강지배는 그들 지역의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켜 ‘영구적’으로 ‘중국’의 판도에 편입하였다(Fletcher 1978, 35-36). 결국 현재 ‘중국’이라는 국가의 공간과 민족적 구성을 새로 정립한 주체는 바로 만주제국이었다.

중국, 동아시아, 내륙아시아를 통치한 대제국의 지배자였던 만주족의 정체성은 이 시대 역사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만주족이 점차 ‘한화’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는 지극히 단순한 한족중심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즉 만주족들은 한족의 타자(the Other)이자 한화(漢化, Sinicization)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지금 학계의 관점에서는 만주제국은 오직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국’ 역대 왕조역사의 한 단계로, 그리고 만주족은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만 그들의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청제국의 ‘만주성’을 부정하는 한화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다민족제국인 청을 한족왕조인 명에 연결하면서 중국(즉 한족)중심적 세계질서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족중심적 시각은 정복왕조와 한족왕조, 그리고 만주제국과 이전 ‘중국’왕조와의 중요한 역사적 차이점을 무시하고 있다.

명의 2배에 이르는 대제국을 세우고 근 300여 년 동안 그들의 300배가 넘는 한족들을 통치한 만주족의 저력이 과연 ‘한화’에서 나온 것일까? 최근 서구 학계에서는 기존의 한족중심적 시각을 비판하면서 만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소위 ‘만주중심적 관점’(A Manchu-centered view)에 입각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¹⁾ 이 논문에서는 한화이론이 만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부정하였고, 이

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만주중심적 혹은 ‘내륙아시아 관점’ (Inner Asian Perspective)의 최근 연구동향을 팔기제도와 제국팽창의 주제와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한화(漢化) 이론이 부정한 만주족의 정체성

한화이론은 ‘중국’을 지배한 모든 이민족들은 ‘선진’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 본래의 정체성을 잃게 되며 중국의 거대한 영토와 인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왕조의 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중국의 학자들은 몽골 세계제국 원나라가 ‘중국’에서 “불과 100여 년” 만에 멸망한 것은 몽골인들이 한족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까지 한다(劉永海 1996; 任崇岳, 2000, 55-6). 그러나 몽골과는 대조적으로 만주족의 청나라가 근 3세기 동안 중국을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만주족들이 한족의 정치이념과 문화를 받아들여 한족 엘리트 계층의 지지를 받았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한화’ 이론을 지지하는 중국과 서구의 학자들은 청나라의 통치가 만주족이 한족 문화의 후원자로 나서면서 한족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²⁾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청제국을 전형적인 ‘중국왕조’로 설정하고 만주족의 엘리트 계급이 궁극적으로 한족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인’으로 변형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들 학자들은 청나라시기에 꾸준히 이루어진 ‘한화’로 1800년 이후 만주족과 한족의 차이는 없어졌고, 19세기 서구가 ‘중국’을 침략하였을 당시의 ‘중국’이 소수의 만주족이 절대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정복왕조라는 사실에도 별다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서구에서도 1980년대 이전의 만주제국 역사 연구의 대부분은 ‘한화’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일찍이 메리 라이트(Mary C. Wright)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만주 조정이 더 이상 만주족과 한족 사이의 차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특히 만주족과 한족 엘리트간의 정치·문화적 “혼합”(Sino-Manchu amalgam)으로 두 민족의 차이가 무의미(irrelevant)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1957; 1968, 21-23). 또 하병체(何炳棣, Ho Ping-ti)는 만주제국 성공의 비결을 만주족의 ‘체계적인 한화 정책’에서 찾았다(Ho 1967, 191). 청대 만주 “변강”을 연구한 로버트 리(Robert H. G. Lee)도 연구의 초점을 한화에 맞추었는데 만주제국 초기의 한(汗)들이 그들 고유의 언어와 풍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만주사회의 ‘한화’는 이미 입관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

이러한 한화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복왕조의 한족문화 수용이라는 역사적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화의 변용(Acculturation)과 동화(Assimilation)의 차이를 혼동하거나 고의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⁴⁾ 이들은 종종 유교문화와 한족문화를 동일시하며 유교의 사상과 제도의 수용을 곧 ‘한화’

1) 그 중 몇 연구 성과는 윤영인, 「만주족의 정체성과 한화(漢化) 이론에 대한 서구 학계의 신간 소개」, 『만주연구』 제2집 (2005년 4월), 173-82쪽에서 간단히 소개한 바 있다.

2) 대표적인 예로 Duara 1996, 49-50을 참조.

3) “Thus, sinicization of Manchu society had begun well before the Manchu conquest of China”(Lee 1970, 8).

4)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만주제국의 역사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몽골 원제국 등 다른 정복왕조 시대사 연구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윤영인 2005, 31-33).

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이 ‘중국’의 성리학(性理學)을 받아들여 대규모의 사회적 변화를 이룬 ‘한국의 유교화’(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를 결코 조선의 ‘한화’로 보지 않는다(Deuchler 1992). 한족문화와 가치관의 수용이 반드시 북방민족의 정체성 동요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또 어느 정도의 문화적 동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한화’로 규정할 수 없다.

나아가 ‘한화’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한화’라는 용어에 내재되어 있는 ‘한족,’ ‘중국,’ 혹은 ‘중국문화’ 등의 개념이 시대성을 초월하는 불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록 한인(漢人)들은 역사적으로 오래 지속되어 내려왔으나, 역사에서의 한인(漢人)은 현대 ‘중국’이 ‘제국’에서 ‘민족국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인 한족(漢族) 혹은 한민족(漢民族)과는 분명 다른 존재였다(Gladney 2004, 14). 하지만 한화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그 ‘한화’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어느 형태라도 ‘한족’의 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한화’ 현상으로 단정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한화이론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청대 역사 연구에서 만주족의 정체성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청나라가 소수의 정복민족이 통치한 다민족·다문화의 제국이었다는 사실도 망각되어 온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II. 만주중심적 청대사 연구

그런데 최근 이러한 한화이론의 과장과 왜곡을 지적하면서 기존에 무시되었던 만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서구학계의 연구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로스키(Evelyn Rawski)는 만주제국이 몽골, 티베트, 만주, 그리고 한족 등 다양한 민족과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름 아닌 바로 만주족의 정체성이었다고 주장하였다(Rawski 1998).

만주제국은 결코 한족왕조 명나라의 통치 이념과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채택하지 않았으며 소수의 만주족이 정복민족으로 절대다수의 한족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였다. 청대의 만주족은 원대의 몽골 통치자들처럼 그들과 피지배자(즉 한족)와의 차별을 분명히 하였으며, 그러한 차별은 정치·법률·경제·사회 등에서의 특권으로 나타났다. 청나라는 결코 ‘한족’ 혹은 ‘중국’ 중심의 제국이 아니었고 만주제국의 황제는 단순한 한족 전통의 황제(皇帝)가 아니었다. 청제국은 다섯 개의 독자적인 민족·언어·문화적 단위(즉 만주, 한족, 몽골, 티베트, 무슬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정점에 아신지오로(Aisin Gioro) 황실이 군림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버거(Patricia Berger)는 만주 황제가 티베트와 몽골에서는 전륜성왕(轉輪聖王: chakravartin)으로 인식되었으며, 황권을 정당화하는 불교 의례와 미술에서도 한족 문화와는 의도적으로 다른 ‘여러 얼굴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강조한다(Berger 2003, 57-61). 만주제국의 통치자는 한족에게는 ‘황제’로 군림하였으나, 내륙아시아의 몽골과 만주족에게는 몽골세계제국을 세운 칭기즈칸의 역사와 전통을 이은 대칸이었다. 18세기에 만주제국에 편입된 신강(新疆)지역의 회교도들도 청나라 황제를 “중국의 칸” 혹은 “대칸”으로 표현하고 인식하였다(Kim 2004, 69). 결국 청대의 광활한 ‘변경’ 지역은 ‘중국’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만주제국의 일부로 편입된 것이었고, 청 조정은 실제 변경 통치에 있어서 한족관료를 철저히 배제하였다(Farquhar 1978, 5-34).

청제국의 통치자들은 또 ‘문화의 중심’인 중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야만으로 전락한다는 전형적

한족 세계관을 수용하지 않았다. 승덕(承德)에 위치한 청나라 피서산장(避暑山莊)의 공간적 의미를 연구한 포레(Philippe Forêt)는 만주제국의 하계 ‘수도’의 위치가 한족의 역사와 전통 시각으로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에서는 멀리 떨어진 오지이지만, 다민족제국을 통치한 청나라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곳이 바로 중국(중원), 만주, 그리고 몽골이 만나는 제국의 중심지였다고 말한다.⁵⁾

이러한 만주족의 정체성과 차별성은 한족중심적 시각인 ‘필연적인’ 한화현상과 ‘한족중심적 세계 질서’(The Chinese World Order)등의 개념과 정면으로 대치된다(Waley-Cohen 2003, 326).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정치·경제적 관점보다는 한족중심적 문화론에서 접근하는 페어뱅크(John K. Fairbank)의 ‘중국적[한족]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 모델에 집착하고 있는데, 페어뱅크의 이론은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족왕조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역사의 실제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한족 문화(우월)론에 대해 이론적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윤영인 2002 참조).

청대의 국제관계를 ‘한족중심주의’에 의한 ‘조공책봉체제’란 틀로 접근하는 것은 만주족의 완전히 ‘한화’되었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물론 만주제국이 간혹 한족중심적 이론을 그들의 통치에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만주조정이 한족 중심적 레토릭(rhetoric)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그들이 ‘한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주제국이 말하는 ‘중국’과 전통 한족왕조가 말하는 ‘중국’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그들의 레토릭과 실제 상황은 종종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비아(James Hevia)는 18-9세기의 영국과 청의 교류를 “문명 혹은 문화의 만남”(an encounter between civilizations or cultures)으로 보는 조공제도(tribute system)의 틀을 벗어나, 만주와 영국이라는 두 제국의(two imperial formations)의 만남으로 재조명하고 있다(Hevia 1999, 25).

III. 만주족의 정체성과 팔기제도

만주제국의 통치 기반은 한족의 전통적 유교 정치제도가 아닌 소수 정복민족의 만주족이 대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이분화된 정치체제였다. 엘리엇(Mark C. Elliott)는 이러한 정복-통치민족으로서의 만주족의 특성을 제국 내부 질서의 정상에 위치한 만주황제의 지위, 이민족의 중국 정복, 그리고 정복민족 고유문화의 보전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 “민족주권”(ethnic sovereignty)⁶⁾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민족주권’에 의거한 만주족의 차별성이 절대 다수의 한족을 통치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다고 보았다(Elliott 2001, 4-6).

만주제국의 ‘민족주권’과 통치기구의 중심에는 팔기제도(八旗制度)가 있었고 청대 만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서구의 학자들은 바로 이 팔기제도와 기인들의 정체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크로스리(Pamela Crossley)는 제국 초기 만주, 몽골, 조선, 한족 등 여러 부족 혹은 ‘민족’들이 팔기에 편입된 당시에는 ‘만주족’의 정체성 인식과 작용이 아직 미약했다고 보았다(Crossley

5) “The location chosen for the Qing empire’s summer capital was unlikely from a Chinese point of view. Jehol was even farther from the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of China than was Beijing. ... From the Manchu point of view, ... the location ... was strategic and made excellent sense. Jehol occupies the precise meeting point of China, Manchuria, and Mongolia”(Forêt 2000, 16-17).

6) 중국학계에서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기피하여 이 용어를 ‘족군주권’(族群主權)으로 번역한다.

1999). 그러나 만주 조정은 다수의 한족을 통치하면서 소수 정복민족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雍正(1722-35)과 乾隆(1735-96) 황제는 쇠퇴하는 “만주고유의 방식”(Manjusai fe doru; The Manchu Way)을 쇄신하기 위해 혈연 중심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한족으로 구성된 한군(漢軍)을 팔기제도에서 축출하였다. 그 후 한족이 배제된 기인(旗人)들은 ‘만주족’과 동일시되면서 점차 ‘만주’라는 강한 민족적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1850년에서 1865년까지 중국을 휩쓴 태평천국의 난에서 반란군이 만주족을 적으로 규명하여 ‘민족적’ 학살을 자행하고, 1911년 신해혁명 이후 만주족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더욱 내면화되고 강화되었다고 한다.

로드스(Edward J. M. Rhoads)는 기인(旗人)을 일본의 사무라이에 비견되는 “세습적 군인 계급”(a hereditary military caste)로 보았다. 그들이 1920년대 중반에 만주족이라는 민족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1950년대 초에 만(주)족을 “청대 기인의 후예”라고 정의한 것과도 상통하는 것이다(Rhoads 2000, 278, 289-91). 기인들이 청 황실에 근 3세기 동안 변함없는 충성을 다한 이면에는 만주족의 정체성이 있었고, 20세기까지도 그러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주족에게 ‘한화’가 있었다면 한족에게도 만주족의 머리 양식인 변발, 조정 관료들의 복장, 그리고 제국의 공식언어로 사용된 만주문자와 언어 등의 ‘만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로드스는 만주족의 “한화”도 한족의 “만주화”도 두 민족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의 격동기에 만주족들은 그들이 정복민족으로 누리던 특권과 지위를 상실하고 오히려 차별과 압박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족과 구별되는 그들의 정체성에 집착하고 있었다고 하였다(2000, 190-205).

엘리엇도 만주족들이 ‘한족문화’를 수용하는 경향을 막지는 못했지만, 만주조정에서는 팔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만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만주족은 “문화적 일관성의 부재”(cultural incoherence)에도 불구하고 팔기제도를 통해 그들의 “민족적 결합력”(ethnic coherence)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Elliott 2001, 17), 이는 한족과 만주족의 문화적 차이가 좁혀지고 있었지만 만주족과 한족간의 ‘민족’적 차이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팔기제도가 만주족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는 북경과 주방팔기(駐防八旗)에 속한 기인(旗人)들의 생활공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만주제국은 기인들을 제국의 중요 도시에 배치하였는데 각 도시의 중심에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만성(滿城)이라는 그들만의 분리된 거주 지역을 형성하여 기인 즉 만주족은 정복민족이자 지배계급이라는 현실을 대다수 한족에게 상기시켰다. 또 만주 조정은 그들 정체성의 근원이자 기반이었던 팔기제도에 정치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매년 제국 총 재정 수입의 최소 5분의 1을 당시 총 인구의 2% 이내에 불과한 만주족(기인)에게 할당하였다(Elliott 2001, 311).

IV. 만주족의 정체성과 제국의 팽창

만주제국을 ‘중국’으로 인식하는 학자들은 “서구의 충격과 중국의 대응”(Western impact/Chinese response), 조공책봉제도, 중국적 세계질서 등의 한족중심적 패러다임에 집착하여 그들 연

구의 초점을 만주제국의 중원지역에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청나라의 ‘중국적’ 요소를 강조하는 동시에 제국의 내륙아시아 변경(특히 18세기 중반 청제국이 준가르국을 멸망시킨 후에 제국에 편입된 신강(新疆)지역)과 만주제국의 내륙아시아적 성격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 제국의 팽창과 내륙아시아 통치는 전통적 한족왕조의 틀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신강과 몽골, 그리고 티벳 등의 지역에 대한 청의 정책에서 만주족의 정체성과 만주제국의 내륙아시아적 성격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중원의 한족왕조와 달리 만주에서 흥기한 정복왕조는 초원의 유목민족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륙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정치·군사적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 바필드(Thomas J. Barfield)의 주장(1989, 9-10) 역시 청제국시기 만주족의 정체성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기원전 한(漢)나라와 흉노(匈奴)제국의 대립이라 그 어느 한족왕조도 풀지 못한 북방 유목민의 문제를 건륭제 치하의 만주제국이 완전히 해결한 것은 우연이었을까, ‘한화’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만주족의 ‘내륙아시아적 정체성’ 때문이었을까?

밀워드(James Millward)에 의하면 만주제국은 동지나해 연안에서 영국 등 서구 해양세력과의 충돌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서북 변경의 몽골 준가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그 지역을 정복하고 제국의 판도에 직접 편입하였다고 하였다(1998, 116). 즉 신강지역을 보는 청 조정의 입장은 한족의 전통과 유교적 선입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청제국의 경계를 ‘중국’의 전통적 자연적 경계에 맞추기 위한 것은 더욱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8-19세기 서구와의 교류에 대한 청나라의 태도와 대처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한화’된 청 조정의 ‘유교적’ 시각이라는 단순한 문화론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만주족의 정체성에 입각한 정치적 입장과 시대적 배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퍼두(Peter Perdue) 역시 청은 제국적 이념과 정책, 군사력 등에 있어서 한족왕조 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2005, 507). 만주족은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정복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사회를 재구성하였고 명이 무너지자 중원을 획득하였지만 한족과는 달리 중원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하여 영토 확장을 이루었다. 퍼두는 이러한 정복과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진 정치·경제·경제도적 혁신들이 만주제국의 정치적 성공과 영토의 팽창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는 티벳, 몽골과 만주, 그리고 신강지역이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가 아니며 오히려 만주족의 청나라가 이룬 정복의 산물이자 유산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퍼두는 만주족이 이루어낸 청대 신강지역의 ‘爭取’(conquest)는 부정하면서 ‘統一’(unification)만을 내세우는 중국학자들의 모순된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다(Perdue 2005, 506-11).

결 론

현대 중국의 역사학계는 ‘중국’이라는 개념을 진한(秦漢)시대 이후 2000 여 년간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사회정치적 존재로 설정하고 청대 ‘중국’의 영토가 내륙아시아로 확장한 역사적 사실을 ‘중국’(즉 한족)의 문화와 세력이 팽창한 결과로 인식한다. 그리고 명대에 ‘중국’의 통치 밖에 놓여 있던 몽골, 티베트, 신강, 만주 등의 지역과 그곳에 거주하던 여러 민족들이 ‘중국’이었던 청나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의 바탕에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그리고 중국을 구성하는 56개 민족의 모든 역사를 ‘중국사’의 범주로 설정하고 ‘중화다민족국가’ (中華多民族國家)라는 현대적 개념을 일률적으로 과거에 소급 적용한 현재주의(presentism)가 있다.

중국의 현재주의는 독자적 문화와 역사를 가진 전근대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국가’를 모두 전근대 ‘중국(한족)적 세계질서’와 ‘중국국가’의 범주에 넣으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개념은 어느 고정된 민족, 문화 혹은 국가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럽’과 같은 지정학적 용어에 불과하였다. 청을 ‘중국’으로, 만주족을 ‘중화민족’으로 보는 현재주의적 역사관은 청제국에서의 만주족의 정체성과 한족통치, 그리고 내륙아시아로의 팽창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청 제국을 위시한 북방 정복 왕조사는 ‘중국사’의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한족의 일부 혹은 전부가 다민족제국인 정복왕조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다민족제국인 청나라의 입장이 한족 왕조가 인식한 세계질서와 결코 같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서구학계의 새로운 만주중심적 청대사 연구는 그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서구 학계의 ‘탈한족중심적’ 즉 ‘만주중심적’ 시각은 만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서 분리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한 소위 ‘만선사관’(滿鮮史觀)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구학계의 ‘내륙아시아적’ 시각은 만선사의 식민사관과는 분명히 그 대상과 주체가 다르며, 만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서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주의 입장에서 당시의 청대사를 보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 한화이론에 의해 부정된 만주족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청대 ‘중국사’가 아닌 만주제국사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물론 서구의 새로운 청대사 연구와 만선사관과의 이론적 비교와 분석은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만주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족 구성과 영토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역사적 우연이 아닌 중국역사의 자연스러운 전개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중국의 현재주의 역사관에 대한 우리의 체계적인 비판의식이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지금 서구의 학자들은 한족중심적 한문(漢文)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정복왕조에 대한 은폐, 전유, 왜곡, 그리고 과장을 극복하기위해 북방민족 고유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사료를 적극 활용하여 그동안 한문기록에 가려져 있던 만주족 그들 자신의 시각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⁷⁾ 기존의 한족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만주족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러한 서구 학계의 최근 연구 성과는 중국학계가 진행하고 있는 ‘소수민족’과 주변국가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에 우리학계의 깊은 관심과 연구를 요구한다.

7) 청대의 만주, 몽골, 티벳 등 비한문(非漢文) 문헌과 기록은 각각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한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문문헌과는 내용과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플레처(Joseph Fletcher)는 일찍이 청대사 연구자에게 한문 기록의 구속에서 벗어나 여러 내륙아시아 언어로 기록된 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Fletcher 1981, 655-56).

Works Cited

- 劉永海 1996. 「試論蒙古汗國和元朝的對儒政策」 『唐山師範學院學報』, (1996年 03期).
- 任崇岳 2000. 「論遼, 西夏, 金, 元時期文化精神的特色」 『北方文物』, (2000年02期).
- 윤영인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109호).
- 윤영인 2005. 「중국의 몽골-한족관계 연구 동향—최근 10년간 몽골(원)제국기 민족관계사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민족·변강문제 연구 동향』 (고구려연구재단, 2005).
- Barfield, Thomas J. 1989.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Cambridge and Oxford: Blackwell.
- Berger, Patricia. 2003. *Empire of Emptiness: Buddhist Art and Political Authority in Qing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Crossley, Pamela K. 1999.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rossley, Pamela K. and Evelyn S. Rawski. 1993. "A Profile of the Manchu Language in Qing Histor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53.1:63-102.
- Di Cosmo, Nicola. "State Formation and Periodization in Inner Asian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10.1:1-40.
- Crossley, Pamela K. 1990. *Orphan Warriors: Three Manchu Generations and the End of the Qing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euchler, Martina.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Duara, Prasenjit. 1996. "De-constructing the Chinese Nation." In Jonathan Unger, ed., *Chinese Nationalism*. London: M. E. Sharpe.
- Elliot, Mark C. 2000. "The Limits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Journal of Asian Studies* 59.3:603-46.
- Elliot, Mark C. 2001.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Farquhar, David M. 1978. "Emperor as Bodhisattva in the Governance of the Ch'ing Empi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7:5-34
- Fletcher, Joseph. 1978. "Ch'ing Inner Asia c. 1800."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0, part I, edited by J. K. Fairban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etcher, Joseph. 1981. (Book Review). *Manchu Books in London* by W. Simon and H. G. Nelson i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1.2:655-56.
- Gladney, Dru C. 2004. *Dislocating China: Reflections on Muslims, Minorities, and Other Subaltern Subjec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via, James L. 1995.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Ho, Ping-Ti. 1967. "The Significance of the Ch'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26.2:189-195.
- Ho, Ping-Ti. 1998. "In Defense of Sinicization: A Rebuttal of Evelyn Rawski's 'Reenvisioning the Qing'." *Journal of Asian Studies* 57.1:123-155.
- Kim, Hodong. 2004. *Holy War in China: The Muslim Rebellion and State in Chinese Central Asia, 1864-187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 Robert H. G. 1970.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lward, James A. 1998. *Beyond the Pass: Economy, Ethnicity, and Empire in Qing Central Asia, 1759-186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erdue, Peter. 2005.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ski, Evelyn S. 1996. "Presidential Address: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4:829-850.
- Rawski, Evelyn S. 1998.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the Qing Imperial Institution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hoads, Edward J. M. 2000. *Manchus and Han: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Waley-Cohen, Joanna. 2003. "Changing Spaces of Empire in Eighteenth Century Qing China." In Nicola Di Cosmo and Don J. Wyatt eds., *Political Frontiers, Ethnic Boundaries, and Human Geographies in Chinese Hist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urzon.
- Wright, Mary C. 1957. *The Last Stand of Chinese Conservatism: The T'ung-Chih Restoration, 1862-187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Wright, Mary C. 1968. "Introduction: The Rising Tide of Change." In Mary C. Wright, ed., *China in Revolution: The First Phase, 1900-1913*, 1-63.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Ming was not a successor to the Mongol Yuan Empire, but it had merely established an independent Han Chinese regime that occupied a part of the world empire. Similarly, the Manchu Qing Empire(Daicing gurun) did not succeed but conquered the Chinese Ming dynasty. Whereas the Ming was satisfied as a “lesser empire” ruling over the traditional Han territory of the “Central Plain,” the Manchus built a large empire twice the size of the Ming through conquest of the “border regions” of Xinjiang, Tibet, Mongolia, Manchuria, and Taiwan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e “border regions” were joined not to “China” but to the Manchu Qing Empire. The Qing control fundamentally changed society and economy of those regions, and they finally became “integral” parts of China, and the spatial and ethnic make-up of today’s China had been newly constituted only during the Manchu Qing period.

The separate ethnic identity of the Manchu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ir rule over the vast multi-ethnic empire. However, most studies have followed the rather simple notion that the Manchus had been “sinicized” and lost their own identity. A few Western scholars now reject this simplistic Sinocentric perspective, and this paper presents a brief overview of the recent Western academic works that approach the Qing history from the “Manchu-centered” or “Inner Asian” perspectives.